

대선 공동공약 영호남 손 잡았다

광주시-대구시, 전남도-부산·경남도 내륙철도 개설·목포~부산 KTX 등 '수도권 집중화' 공동대응 공약화 제안

‘수도권 집중화’로 개발에서 소외되어온 영·호남 자치단체들이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상발전과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 대선공약을 발굴, 각 후보 진영에 요구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
3일 광주시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그동안 ‘달빛동맹’으로 결속을 다져온 두 도시는 공동 숙원사업인 광주~대구간 내륙철도 건설 등을 공동 대선공약 제안사업으로 확정했다. 지난 8월 광주시가 이 사업을 대선공약 제안사업으로 확정할 때 이어 최근 대구시도 공동 공약으로 제안하기로 한

것이다.
‘달빛동맹’은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동맹을 뜻하는 말이다.
이 사업은 그동안 영·호남 화합과 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꾸준히 타당성이 제기돼 왔으며, 지난 4월 확정된 2020년까지의 제 2차 국가철도망 계획 추가 검토대상에 포함되면서 착공의 발판이 마련된 상태다.
양 시는 영·호남 내륙철도의 개통으로 고속열차가 운행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의 거리가 1시간 이내로 단축돼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을 하나로 묶는 남부내륙 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남선과 전라선,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과의 연계 철도망이 구축돼 철도의 효율성도 극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시는 또 현재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공사중인 88올림픽 고속도로가 2015년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대선후보측에 공동 건의할 방침이다.
양 시는 내륙철도와 88고속도로 확장 개통 등이 이뤄질 경우 현재 충청권까지 잠식한 ‘수도권 경제권’과의 경쟁이 가능해져 지역균형발전과 인적·물적교류 확대에 따른 지역갈등 해소 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선 유력후자 중 한 명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가 대구 달성구였다는 점에서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도 대구와 광주의 공동 공약안을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위한 협력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공동대선공약 제안사업’은 크게 ▲목포~부산 KTX 조기 완공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한려대교 건설 ▲선벨트와 연계한 남해안 관광산업 발전 등 세 가지다.
영·호남 자치단체들은 앞으로 주요 정당과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해당 사업의 정당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공약 세일즈’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각 정당 관계자라도 연계해 공동 제안사업이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영·호남 자치단체의 결집은 수도권 위주의 잘못된 경제 시스템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이번 SOC 협력사업 이외에도 영·호남의 상상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을 구상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3일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방문, 휴일 공원을 찾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에 쏠린 눈

여수·순천 민생투어 주민들 몰려...오늘 조선대 특강

전국 민생투어의 첫 방문지로 호남을 찾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행보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 후보는 3일 오전 9시30분 여수시 돌산읍 송도 가두리양식장을 방문, 태풍 피해로 시름에 잠긴 어민들을 위로하면서 어민들이 풍수에 보험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도 가두리양식장 주변엔 주민들이 대거 몰렸으며, 취재진에 둘러싸인 안 후보를 면담치에서 본 일부 주민들은 “안철수”를 연호하며 반겼다.
안 후보가 이날 오후 2시에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에 도착하자 150여명의

관광객들은 가던 걸음을 멈춘 채 그를 향해 카메라 셔터를 연방 눌러댔다. 일부 관광객들은 “안철수 파이팅”, “꼭 대선 승리하세요”라고 외치며, 어린 자녀와 함께 온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은 자신이 가져온 손수건·모자·책 등을 안 후보에게 건네며 사인을 요청했다.
안 후보는 흔쾌히 응했다. 애초 30분간 순천만에 머물 예정이었던 안 후보는 관광객들의 잇따른 기념사진 촬영과 싸인 요청에 일정이 20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안 후보가 1.2km 구간 갈대숲을 향해 걸어가자, 20~30대 젊은 나들이객들은 그를 뒤따르면서 응원했다.

4일 오후 2시부터 조선대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이뤄질 안 후보의 조선대 특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조선대 대학원 총학생회와 대학 총학생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특강은 휴일이었던 지난 1일 오후 갑작스럽게 결정됐다.
학생회는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 특강 소식을 알릴 시간이 2일 하루밖에 없어 1000석의 강당을 채우기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특강소식이 학교 게시판에 오르자 입소문과 트위터 등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다. 너무 많은 관심이 학생회는 내심 반가우면서도 자칫 안전사고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학생회는 좌석과 통로 등을 감안한 입장시간을 1300명의 청중만을 강당에 입장시킨다는 방침이다.
/채희중·이종행기자 chae@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本 社 人 事
▲ 奇 賢 鎭: 편집국 부국장
(10월 3일자)

KIA ‘실망야구’ 호남은 우울하다

선동열 감독 영입·구단 전폭 지원 불구 4강 좌절...가을잔치 남의 일

선동열 감독의 취임과 함께 부풀었던 지역민들의 타이거즈 ‘명가 재건’의 꿈이 4강 탈락과 함께 허무한 꿈으로 끝났다. <관련기사 14면>
KIA는 시즌 막바지 선발진의 분투 속에 마지막 불꽃을 태웠지만 시즌 3경기를 남겨두고 4강 탈락의 쓴 잔을 마셨다.
서재응을 필두로 해서 윤석민, 김

진우, 소사가 완투·완봉 릴레이를 펼치며 뒤늦게 선발 야구가 꽃을 피웠지만 앞선 시행착오와 실패를 만회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4강 티켓을 얻지 못한 KIA는 타이거즈 색을 살리는 데도 실패해 호남 지역민들은 우울한 2012시즌 가을을 보내게 됐다.
돈돈한 마운드와 화끈한 공격력으로 ‘골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야구’를 펼쳐왔던 타이거즈 역사의 두 주역 선동열 감독과 이순철 수석코치가 이기투합한 만큼 지역민들의 기대는 컸다.
하지만 우승후보로까지 거론되며 야심차게 출발한 ‘선동열호’는 준비부족속에 부상이라는 안초까지 만나며 시즌 내내 제자리만 맴돌았다.

벤치는 자유계약(FA)선수 영입 없이 내부 전력에 주목하며 베테랑의 역할을 강조했다. 하지만 벤치는 ‘낯선 팀’에서의 세밀한 전력 분석과 준비가 없었다.
시즌 출발 전 벤치가 주목했던 신종길 등 캠프 MVP는 기대주로만 그쳤다. 또 이종범의 은퇴와 함께 팀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베테랑들이 부진과 부상으로 팀에서 이탈하면서 새로운 코칭 스태프와 신예 선수들이 새로 가세한 선수단을 엮을 구심점이 없었다.
부상이라는 돌발 변수에 대한 대비도 부족했다. 이병호·최희섭 대형 부상병들의 귀환을 기다리느라 싸울 시기를 놓친 KIA는 이들의 부재로 시작된 타선 부진의 악순환을

넘어서지 못했다.
화끈한 야구를 예고했지만 기대했던 타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타이거즈 팬들의 바람과 다른 번트위주의 ‘스몰 야구’가 주를 이뤘다. 자원 부족으로 불펜을 완성하지 못한 채 전통적인 강점으로 여겨져 온 선발만이 분투했다. 9월 마지막 싸움도 아쉬웠다. 9월을 앞두고 벤치와 구단의 미묘한 입장차가 생겼다.
4강 싸움에 대한 계산이 다른 가운데 벤치가 먼저 내년 시즌에 초점을 맞췄다. 4강 싸움이 진행되면 9월 초 KIA 벤치는 4강 탈락 기정 사실화하며 마무리 캠프 일정을 가장 먼저 확정해 발표했다.
너무 일찍, 또 쉽게 2012시즌을 놓은 KIA는 4강을 놓고 뒤늦게 입맛을 다셔야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3학년도 학부 수시 2차
원서접수: 11. 12(월)~16(금)
2013학년도 대학원
원서접수: 11. 12(월)~30(금)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제19회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Gwangju World Kimchi Culture Festival 2012

세계가 열광하는 Say Kimchi!
The world loves to Say Kimchi!

김치오감박물관
김치감동을 찾아 떠나는 김치여행
김치 속에 담긴 정성과 마음을 보듬어 주는 숨은 맛의 매력으로 관람객에게 따뜻한 감동의 순간을 건넬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김치정보가 가득한 전시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축제프로그램
김치콘테스트 & 아카데미
최고의 김치명인과 시민김치왕, 김치명인도시락을 선발하는 김치콘테스트! 김치명인이 들려주는 김치이야기와 무도스타일리스트에게 배우는 김치의 맛을 김치아카데미에서 확인하세요.
김치문화나눔마당
김치사랑 나눔 메세나, 김치예술무대, 자치구 시민헌마당, 김치타운 오감투어 등 따뜻한 나눔과 흥겨운 이벤트,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전라도김치명장터
광주·전남 김치생산업체가 참여하는 김치직거래장터에서 품질 좋고 저렴한 가격의 전라도 김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치놀이마당
김치키워드 퍼레이드, 김치댄스, 외국인김치체험대를 비롯해 김치와 놀이·공예·전통이 만나는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김치구매고객 사은 행사」김치냉장고를 잡아라!
전라도김치명장터 김치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1명씩 추첨하여 김치냉장고를 드립니다.

반크와 함께하는 김치감동 이야기
「디지털한식홍보대사-김치홍보대원」
사이버외교사절단 VANK와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가 세계에 김치를 홍보할 김치홍보대원 200명과 함께 김치 뿐 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릴 것입니다.

기간 2012.10.13~17 / 5일간 장소 광주 중외공원 일원 주최 광주광역시 광주시민회 주관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위원회 후원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한국관광공사,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F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